

관광관련 정부정책

제836호 (2022년 11월 첫째 주) 정책정보센터 Tour.go.kr

[광주광역시] 올 3분기까지 관광객, 지난해 전체 훌쩍 뛰어넘어	2
[문화체육관광부] 아태지역 관광 회복과 혁신 논의 주도	4
[국토교통부] 관광 연계형 자율주행 서비스 제주에서 본격 개시	6
[해양수산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남긴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 지원	8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내년부터 새단장에 들어간다	9
[부산광역시] 전문 의료진과 함께 몽골 의료관광 유치 교두보	10
[대구광역시] 대구관광 유치분야 관광스타트업 10개팀 최종 선정	11
[울산광역시] 주제별 도시관광(시티투어) 버스 다시 달린다	12
[경기도] 수원행궁 등에서 시각·청각장애인 위한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 개시	13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광 부흥 시대 열어간다	14

[광주광역시] 광주시 올 3분기까지 관광객, 지난해 전체 훌쩍 뛰어넘어

- 432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늘어
- 연말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도 쉽게 넘어설 듯
- 관광호텔 객실 이용률·광주관광상품 운영업체도 증가 추세

- 올 3분기까지 광주광역시를 찾은 관광객이 432만3977명으로, 지난 한해 관광객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광역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집계하는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서 3분기 광주지역 관광객 수가 총 155만779명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 이는 지난해 동기 83만2911명 대비 86% 증가한 것이다.
-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관광객 수는 432만3977명으로 지난해 동기 263만1551명 대비 64% 증가했고, 지난해 연간 관광객 307만5106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연말까지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관광객 626만8660명도 쉽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광주시의 42개 주요관광지점 중 영산강문화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국립광주박물관의 방문객 수가 크게 늘었다. 지점 특성별로는 ▲생태관광 61만명 ▲MICE관광 28만명 ▲전시·박물관 28만명 ▲체험관광 15만명 ▲역사관광 10만명 ▲문화예술 5만9000명 ▲생활관광 2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 관광객의 유형 변화도 관찰된다. 올해 9월 기준 지역 관광호텔 4곳의 평균 객실 이용률은 45%로, 2020년(37%)과 2021년(41%)에 비해 상승했다. 엔데믹 시대로 진입하면서 광주의 숙박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광주시의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올해 3분기까지의 관광객 숙박일수 합계는 2557박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은 880박, 2021년은 965박이었다. 광주 숙박 관광객 현황이 점차 회복되는 추세다.
- 지역 여행업체의 광주관광상품 운영 역량도 향상됐다. 광주 여행업체는 올해 인센티브 관광객 중 1152명(19%)을 유치했으며, 지역 여행업체의 유치보상금 신청액은 2900만원(2019년), 600만원(2020년)이었으나 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4600만원(2021년), 6800만원(2022년 3분기)으로 코로나19 유행 첫 해인 2020년을 제외하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4~5년 전만 해도 지역 여행업체는 아웃바운드(내국인 해외관광) 중심으로 운영되었으

며, 인바운드(외국인 국내관광)나 인트라바운드(내국인 국내관광) 업체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2020년 설립된 광주관광재단의 지역 여행업체 육성·지원(2022년 협력 여행사 12곳, 전담여행사 17곳 선정)과 광주시의 올해 관광객 유치보상금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지역 업체가 내국인 관광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그 결과 관광객 유치 역량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 또한,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도 다양해졌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광주 관광객의 대부분은 무등산 등반이 목적이었지만, 올해는 양림동근대역사문화마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공연마루, 전일빌딩245 등 문화예술과 역사여행이 주를 이룬다. 이는 그동안 예술관광 및 문화관광자원들을 꾸준히 확충한 결과로 보인다.
- 이와 함께, 최근 조성된 금남로공원의 ‘금남나비정원’과 5.18민주광장의 ‘빛의 분수’ 등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다채로운 야간관광자원 확충도 당일 관광에서 숙박이 포함된 체류형 관광으로의 관광행태 전환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 10월은 전통적으로 광주 방문이 가장 많은 달로, 광주시는 이와 발맞춰 ‘시월 광주’라는 표제로 다양한 축제·행사들을 한데 모아 선보이고 있다. 추억의 광주충장 월드페스티벌(53만명)과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광주세계김치축제(6만여 명) 등 각종 대형행사가 끊이지 않고 펼쳐져 4분기는 축제 연계 광주 관광객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김준영 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방문객 수와 인센티브 운영현황 등 관광 통계지표의 개선은 광주 관광 활성화가 저변에서부터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향후 예정된 시립수목원,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역사이팅 사업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인프라들을 연결하는 스토리텔링형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시민과 외지 방문객이 모두 체감하는 활력 가득한 새로운 관광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관광도시과(062-613-3620) | 게시일 : 2022.11.01.)

[문화체육관광부] 아태지역 관광 회복과 혁신 논의 주도

- 11. 7.~11. 제16차 유엔세계관광기구 아태지역 중견공무원 관광 정책 연수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11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서울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제16차 유엔세계관광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견공무원 관광 정책 연수*’를 진행한다.

* The 16th UNWTO Asia/Pacific Executive Training Program on Tourism Policy and Strategy

- 이번 행사에는 유엔세계관광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 회원국 중견공무원 20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투자’를 주제로 관광산업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민관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광의 미래를 논의한다.
- 문체부는 2006년부터 유엔세계관광기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 연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아태지역 회원국을 순회 개최하는 가운데 3년에 1번씩은 이 사업을 만든 한국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6년 동안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중견공무원 약 300명이 참여한 결과 정책연수는 문체부와 유엔세계관광기구의 대표 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 이번에도 정책연수를 통해 한국 정부의 지속 가능한 관광 선도전략을 공유하고, 디지털 관광의 미래를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광 회복률이 다른 대륙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더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 11월 7일(월), 연수 첫날에는 개회식을 열고 토론회와 국가별 관광정책 발표를 이어간다. 유엔세계관광기구 혁신교육투자국 미구엘 피게로아(Miguel Figueroa)가 관광 투자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실질적 국제관광 투자에 대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 ▲11월 8일(화)에는 ‘친환경 및 디지털 관광 전환으로의 투자(발표자 경희대학교 박상원 교수)’를 주제로, ▲ 11월 9일(수)에는 ‘중소관광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공 투자[발표자 유엔세계관광기구 소피아 구티에레즈(Sofia Gutierrez) 부국장]’를 주제로 발표하고 민관 협력방안을 살펴본다. ▲ 11월 10일(목)에는 문체부가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2 지속 가능한 국제관광포럼’과 연계해 진행하고, ▲ 11월 11일(금), 연수 마지막 날에는 실감체험형 한국 관광 홍보관인 ‘하이커 그라운드’와 수원 ‘스마트관광’ 도시 등 한국문화와 ‘스마트관광’ 정책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이번 정책연수를 통해 한국문화와 융합한 한국의 ‘스마트관광’ 선도전략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044-203-2834) | 게시일 : 2022.11.07.)

[국토교통부] 관광 연계형 자율주행 서비스 제주에서 본격 개시

- 3일부터 공항·해안도로·중문관광단지를 연결한 “탐라 자율차”서비스

□ (앞으로는) 제주를 찾는 여행객은 공항에 도착 후 공항 도착층에서 “순환형 자율주행 관광셔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주 해변(이호테우 해수욕장, 용두암 등)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관광 후 다시 자율차로 공항에서 중문단지 내 호텔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으며, 중문단지 내에서도 자율차를 이용하여 원하는 곳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제주여행이 더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3일부터 제주 해안도로 및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누구나 이용가능한 “탐라 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탐라 자율차*’ 서비스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23년까지 무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자율차 서비스의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이다.

* (참여업체) 라이드플렉스(운행사), 아이티텔레콤, 광명 D&C, KAIST, 제주연구원

□ 지난 ‘20년에 시작한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은 새싹기업(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창의적으로 마련한 자율차 기반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 국토부가 자율차 제작 및 서비스 운영비를 지원하여 자율주행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주 자율주행서비스에는 40억이 지원될 예정(’22.06~’23.12)이다.

《2차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 (목적) 민간기업에 자율차 제작·인프라 구축·서비스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여 자율주행 대국민 체험기회 확대 및 민간기업 사업화 촉진
· (사업대상지) 제주 공항인근 해안도로·중문관광단지(’22년), 서귀포 혁신도시내(’23년 예정) 대구 테크노폴리스(’22년), 국가산업단지(’23년 예정)
· (사업기간·사업비) 2개년간(’22.06~’23.12) 각 지역별 민간사업자에 40억 지원 * 1차사업(’20~’21, 시흥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심야셔틀” 서비스) : 자율차 제작(7대) 및 서비스 운영을 통해 1,900명 이상의 시민에게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 ‘탐라 자율차’ 서비스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제주공항 인근의 용두암-이호테우해변 등 해안도로(총 16km)와 중문관광단지 내(5km²)에서 각각 운영되며, 대중교통 및 기존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연계해 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 ‘22년에는 자율차 3대(해안도로 2대, 중문단지 1대)를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전문 교육을 받은 안전 관리자가 비상 상황을 대비해

운전석에 탑승한다. 서비스 예약 및 차량 호출은 운영업체인 라이드플렉스 누리집(주소) 서비스 링크와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 한편, 이번 2차사업에 민간사업자로 함께 선정된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컨소시엄*도 11월 중에 서비스 준비를 마치고 대구 테크노폴리스(10.6km)와 국가산업단지(17.6km)에서 여객서비스('22년)와 로봇 배송('23년)을 제공하는 “달구벌 자율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참여업체) 오토노머스에이투지(운행사), 카카오모빌리티, KT, 현대오토에버, 뉴빌리티, 한국자동차연구원

-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제주도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관광도시로서 이번 시범사업이 제주도의 관광품격을 한층 더 높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 “정부는 우리기업이 상용화를 위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자율차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간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더 많은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44-201-3851) | 게시일 : 2022.11.02.)

[해양수산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남긴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 지원

- 해수부, 경주, 포항, 강릉, 거제 등 4개 지자체에 국비 17억 8천만원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5,390톤을 처리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 복구 계획 심의가 완료된 경주, 포항, 강릉, 거제 등 4개 지자체에 국비 17억 8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지자체별 지원 규모를 보면, 가장 많은 해양쓰레기(3,400여톤)가 발생한 경상북도 경주시에 10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1,400여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 포항시에는 4억 2천만원을 지원한다. 그 외에 강원도 강릉시에 1억 5천만원, 경상남도 거제시에 1억 2천만원을 지원한다.
- 해양수산부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예상하지 못한 해양쓰레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지원사업’을 통해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번 피해 지원까지 포함하면 지난 5년간(‘18~’22) 총 79,067톤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272억 5천만원을 국비로 지원했다.
- 한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은 강풍과 폭우로 유입된 목재와 초목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해 총 9,059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였고, 10월 31일(월) 12시 기준으로 수거작업은 전부 완료되었다.
 - *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한 3,669톤 포함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복구비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044-200-5307) | 게시일 : 2022.11.07.)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내년부터 새단장에 들어간다

- 전북 부안 격포항 등 5개소, 클린(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클린(CLEAN) 국가어항* 사업의 대상지로 전북 부안 격포항, 강원 양양 남애항, 전남 고흥 녹동항, 경남 거제 다대다포항, 충남 태안 안흥항 등 5개 국가어항을 선정하였다.

* ‘CLEAN 국가어항’이란, 비움(Clearance), 공간분리(Location), 환경개선(Environment)을 통해 국가어항의 모든 것(All)을 새롭게(New) 탄생시키기 위한 공간적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클린(CLEAN) 국가어항사업은 어항 내 방치된 (폐)어구와 기자재를 정리하고 무질서하게 난립된 시설을 개선하여 어항을 경관이 살아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어항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어구창고, 화장실 등의 기능·편익시설을 어항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3년간 5개 국가어항에 각각 1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어촌계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어촌계 소유 시설 등 민간 시설에 대한 정비도 같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고, 21개 국가어항이 공모에 참여하였다. 어촌과 어항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 부안 격포항, 강원 양양 남애항, 전남 고흥 녹동항, 경남 거제 다대다포항, 충남 태안 안흥항 등 5개 국가어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

□ 최종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5개 국가어항 모두는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어항으로서 어업활동이 활발한 곳이며, 주변 경관 또한 수려해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또한, 5개 국가어항을 관할하는 각 지자체에서는 클린(CLEAN) 국가어항사업과 연계해 수산물 위판·가공·판매시설뿐만 아니라 보행교, 전망교, 친수공원 등 다양한 레저·관광시설 등의 투자도 계획하고 있어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곳이기도 하다.

□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5개 국가어항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설계 시 해당 지자체, 지방해양수산청,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 김원중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클린(CLEAN) 국가어항 사업으로 어민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찾는 명품어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53) | 게시일 : 2022.11.01.)

[부산광역시] 전문 의료진과 함께 몽골 의료관광 유치 교두보

- 부산 의료기술 해외홍보 및 의료교류회 성공 개최
- 10.29.~10.30.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부산 의료기술 홍보 및 의료교류회 성공 개최
- 5개 분야 전문의료진과 함께 몽골환자 의료상담으로 실질적인 해외환자 유치 기대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부산 의료기술 해외 홍보 및 의료교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좋은강안병원, ▲쉬즈성형외과 등으로 구성된 부산 방문단이 몽골 환자 부산 유치 선점을 위해 몽골을 방문했다.
- 방한 외국인 환자 수 4위인 몽골은 중증 질환 위주의 환자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고 있고, 선진 의료시설 및 의료기술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 부산시는 코로나19 이후로 만 3년 만에 5개 진료과목(방사선종양학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 의료진들과 함께 몽골을 방문하여 환자 의료상담회, 의료교류회, 원격진료센터 개소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 ‘의료관광 교류회’에서는 현지 유치업체 관계자 70여 명을 초청하여 부산의료관광 홍보영상 소개를 통해 부산의 우수한 의료인프라와 관광 매력을 널리 알렸다. 또한 ‘환자 의료상담회’에서는 병원별 사전 예약한 몽골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전문 의료진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받은 환자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통해 실질적인 환자 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10월 29일 오전 10시에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몽골 토파즈 병원에서 원격진료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센터 개소는 2022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지역 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에 부산시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원격진료 및 의료기술 교류는 물론 해외의사 연수, 나눔의료 등 국제의료교류 사업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의료진들과 방문단을 구성하여 몽골 현지 실정에 맞는 의료상담 중심의 차별화된 상담회 등을 개최해 신뢰를 구축하고 환자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을 추진했다”라면서, “앞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부산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널리 홍보하고, 해외 마케팅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과(051-888-3504) | 게시일 : 2022.11.07.)

[대구광역시] 대구관광 유치분야 관광스타트업 10개팀 최종 선정

- 국내·외 관광객 대구 유치 사업 아이템 모집

- 대구시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관광본부)은 지난 8월부터 진행한 대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창의적인 관광콘텐츠를 가진 전국 소재의 초기 창업 48개 팀을 대상으로 1차 및 2차 심사를 거쳐 관광체험 콘텐츠, 스마트관광, 소셜플랫폼 사업 등 최종 10개 팀을 선정했다.
- 이번 공모전에 참가한 관광분야 초기 창업 48개 팀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서류심사를 통해 1차로 15개 기업을 선정하고, 사업 아이디어 개선을 위해 멘토단을 매칭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 사업 아이템의 완성도를 높인 후 2차 발표심사를 거쳐 관광 스타트업 10개소를 최종 선발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 선정된 주요 사업 아이템 내용은 ▲ 대구 관광지 미션수행 게임 플랫폼 ▲ 판매되지 못한 대구 대표 농산물을 활용한 수제 발효 음료·주류 개발 ▲ AR 기술 활용 가상 미술품 전시 플랫폼 ▲ 택시미디어를 통한 대구 관광 콘텐츠 송출 ▲ 약령시 한약재료를 활용한 무카페인 대체커피 개발 ▲ 메타버스 실감형 대구 관광 플랫폼 ▲ 여행상품 제안 및 비교 플랫폼 ▲ 대구 스포츠 소셜 여행 서비스 ▲ 아웃도어 인터랙티브 관광 콘텐츠 플랫폼 ▲ 세줄일기와 떠나는 대구 사색여행 플랫폼의 아이템으로 구성됐다.
- 향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스타트업 10개 팀과 협약 체결 후 사업화 지원금을 기업당 차등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 맞춤형 1:1 컨설팅, 시제품 시장 검증 프로그램 운영, 마케팅 전략 수립, B2C 홍보 등 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 관광기업 및 투자자와의 교류와 데모데이(기업홍보 발표회) 개최를 통한 관광 펀드를 보유한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육성 기관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대구 관광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2018년부터 2년마다 추진돼 지금까지 총 18개 팀의 관광 스타트업을 육성했으며, 특히 지난 2기 스타트업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현재 6억원 정도의 투자유치 성과를 보이고 있다.
-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 스타트업의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으로 코로나19 이후 대구 관광의 재도약을 기대한다”며, “관광 스타트업이 대구를 대표하는 스타 관광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관광과(053-803-3891) | 게시일 : 2022.11.02.)

[울산광역시] 주제별 도시관광(시티투어) 버스 다시 달린다

- 11월 11일부터 가족·치유·달빛 관광 등 3개 주제
- 울산의 이색·체험 관광지 등 고품질 여행 기회 제공

- 울산의 이색·체험 관광지를 문화관광 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주제별(테마형코스) 울산 도시관광(시티투어)’ 버스가 운행을 재개한다.
-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 2020년 12월부터 중단됐던 ‘주제별(테마형코스) 울산 도시관광(시티투어)’을 오는 11월 11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 울산도시관광(울산시티투어)은 △수요일,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패밀리) △금요일, 간절곶·웅기마을 등 체험 프로그램의 치유(힐링) △토요일, 울산의 아름다운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달빛 등 3개 주제로 구성된다.
- 이용 희망자는 운행일 1일 전 정오까지 울산도시관광(울산시티투어) 누리집 (<http://www.ulsancitytour.co.kr>)으로 사전 예약해야 하며, 문의사항 등은 울산관광재단으로 전화(☎052-255-1826)하면 된다.
- 탑승료는 성인 1만 원, 소인 8,000 원이며 울산시민은 30%, 다자녀가정·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경로자(65세 이상) 등은 50% 할인받을 수 있다. 현장 체험비는 별도 부담해야 한다.
- 울산시 관계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고품격 해설 서비스와 함께 울산의 숨은 매력을 맘껏 느낄 수 있는 울산도시관광(울산시티투어) 버스를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

〈세부 과정〉

- ▲가족(수요일) : 태화강역-울산역-포니랜드-자수정동굴나라-영남알프스복합웰컴센터-울산역-태화강역
- ▲치유(금요일) : 울산역-태화강역-간절곶-정크아트박물관(FE01)-외고산웅기마을-태화강역-울산역
- ▲달빛(토요일야간) : 태화강역-장생포문화창고-울산대교 전망대-십리대밭 은하수길-태화강역

(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과(052-229-3853) | 게시일 : 2022.11.07.)

[경기도] 수원행궁 등에서 시각·청각장애인 위한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 개시

- 경기도 도내 26개소 주요 관광지 현장에서 수어·체험해설 서비스 제공
- 수원 화성, 시흥 오이도, 광주 남한산성, 고양 행주산성 등
- 관광지별 서비스 가능 일정을 경기도 시각·청각장애인 협회에 정보 제공

- 경기도가 11월부터 시각·청각 장애인의 관광만족도 향상을 위해 촉각·청각 활용 묘사와 수어(手語)를 사용한 문화관광 수어 체험해설 서비스를 수원행궁 등 도내 관광지에서 진행한다.
- 문화관광 시각해설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방향과 거리를 묘사하거나 촉각·청각 등의 감각을 활용하며 관광지를 설명하고, 청각해설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로 관광 해설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와 올해 기존 문화관광해설사 60여 명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을 수료한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도내 주요 관광지 26개소에 배치했다. 특히 시·청각 장애인들의 해설 서비스 이용 독려를 위해 경기도 시각 및 청각장애인 협회와 공동 홍보를 진행한다.
- 도는 내년에도 시청각 장애인들의 관광지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 대상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이번 맞춤형 관광해설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장애인 관련 해설 교육을 확대하고, 수준을 향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광과(031-8008-3331) | 게시일 : 2022.11.01.)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광 부흥 시대 열어간다

- 글로벌 해외관광객 유치 위해 권역별 족집게 마케팅 전개

- 국제관광 재개 이후 제주를 찾는 해외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제주 무사증 및 국제선 취항 재개 이후 해외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 6월부터 10월까지 3만 6,996명(잠정치)이 방문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2,580명 대비 16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특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국가 방문객은 10월 누계 1만 4,078명으로 전년 2,409명 대비 584%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해외관광객 급증은 제주도와 도내 관광업체가 협력해 해외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 제주도는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관광업체의 애로점을 설명하고, 국제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지속 건의해 제주 무사증 및 국제선 재개라는 관광업계 숙원의 첫 단추를 풀 어냈다.
- 여기에 발맞춘 발 빠른 행보로 제주⇄싱가포르 간 스쿠트항공의 정기 취항을 이끌어 내 국제관광 활성화의 길을 열었다.
- 세계적 허브공항인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과 제주공항 간 하늘길을 잇고자 지난 6월 1일 현지를 방문해 스쿠트항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6월 15일 첫 취항이 이뤄졌다.
- 취항 행사에는 당시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현 도지사)이 참석해 에릭타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와 면담을 통해 양 도시 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방안을 합의하고 이 용객 증가에 힘을 보탰다.
- 한편, 스쿠트항공은 취항 이후 높은 탑승률을 꾸준히 유지하며 국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객 증가(9월 이후 90% 이상)로 동절기 증편(주3편 ⇒주5편)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
- 창이국제공항과 연계를 통해 국제선 미취항 지역의 국내외관광객들에게 국제교류 거점도시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할 것이다.
- 제주도는 국제관광시장에 부는 훈풍을 이어가기 위해 권역별 맞춤형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 동계 시즌에 대비해 제주 한류 및 인플루언서 등과 연계한 타깃 마케팅을 통한 직항

확대 및 국제선 취항도시 직항 홍보로 탑승률을 높여 복항 안정화를 꾀할 예정이다.

○ 또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글로벌 권역을 세분화하고 해당지역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 중화권 개방에 대비해 현지 홍보사무소를 활용한 마케팅을 전개하는 한편, 대만과 홍콩에서는 현지 박람회 및 제주관광설명회를 통해 직항 탑승률을 제고한다.

- 일본시장은 지난 10월 24일 오영훈 지사의 일본여행업협회(JATA) 방문 이후 현지 분위기를 활용한 국제선 복항 노력에 힘쓰고, 제주기항 크루즈 마케팅을 전개한다.

- 동남아 시장에 대해서는 ‘제주-아세안+a정책’을 바탕으로 관광설명회 등을 통해 현지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한편, 창이국제공항과 연계해 직항 미개설 국가(호주, 유럽 등) 관광객에 대해서도 홍보 마케팅을 펼칠 방침이다.

□ 한편,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은 도내 관련 업계의 혼연일체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현실성 있는 대안과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064-710-3924) | 게시일 : 2022.11.03.)